

20세기 초 미의식의 변화에 따른 국내여성들의 화장법

이 순 재[†]

건국대학교 예술문화대학 의상디자인 전공

The Evolution of Makeup Methods of Korean Women in Response to Changing Standards of Beauty in the Early 20th Century

Soon-Jae Lee[†]

Dept. Apparel Design, College of Arts & Design, Konkuk University

접수일(2010년 7월 9일), 수정일(1차 : 2010년 7월 19일, 완료일 : 2010년 7월 20일), 게재확정일(2010년 7월 21일)

Abstract

Although the human body is a biological subject with definite and distinctive physical features, its actualization and perception differs among societies. The aesthetics of the human body are based on diverse cultural perceptions that must be considered prior to design development. This study establishes the foundations of newly adopted concepts of beauty that are presumed to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that continue to affect our mindset even now. The research includes human figures in the articles of women's magazines and cosmetic advertisements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hange of perception in the human body: Instead of being a subject of preservation, the body has become a subject of sculpture with emphasis on health in the 1920's and on beauty in the 1930's.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body has created intensive attention on physical training and an increased sense of hygiene. The body exposed to the public perceives itself through the eyes of others that alter one's own perception of oneself as well as become a target of evaluation. There is an additional emphasis on the exotic eroticism of a passive subordinate. Western culture became the standard for modernization along with the dissociation of traditional standards and values. Through the effect of education and western thinking, the awareness of women's rights and self-appreciation was developed. Second, ideal beaut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Unprocessed natural beauty was extolled as ideal in the 1920's, but the 1930's, it highlighted big eyes and an aquiline nose t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western women. Taking care of one's appearance was recognized as an important value for every social class. Cosmetics and skin care treatments promised soft and white skin. In contrast to western cosmetics, dark and shiny hair was highly favored. Exercising and traveling, differing seasonal and regional skin treatments were also widely accepted. In its initial stages, the research had originally assumed that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would be a time in which traditional concepts of beauty and new, westernized aesthetics coexisted. However, as the research progressed, it was clear that the idea of beauty had already adopted occidental ideals by that time. Thus, it seems necessary to continue the study on the shifting paradigms of beauty that must have occurred in the nineteenth and late twentieth century.

[†]Corresponding author

E-mail: leesoona@konkuk.ac.kr

본 논문은 2007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Key words: Early 20th century, Aesthetics of human body, Women's magazine, Standards of beauty, Makeup; 20세기 초, 인체미, 여성잡지, 미의식, 화장법

I. 서 론

현대인들에게 몸은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이다. 오랫동안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화장에서조차 남성용 화장품과 화장법의 소개가 낫설지 않게 되었듯이 몸가꾸기는 성별, 연령을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몸매관리에 관련된 산업이 번창하고 있으며 각종 대중매체들은 젊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연구는 20세기 전반부의 몸가꾸기에 관한 자료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이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쉴링(1993/1999)은 현대의 사회생활이 여전히 근대적 관심사들에 의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근대성과 자아에 대한 관심이 시대착오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종교와 정치적 서사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개인을 초월한 의미구조들로부터 명확한 세계관이나 자아정체성을 더 이상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몸이 신뢰할 만한 자아감을 재구성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거시적 서사에서 미시적 서사로 시각의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요즈음의 시대적 특성과 더불어 20세기 전반 우리나라의 근대 사회생활상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성과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이 시기는 인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시기로 전통적 인식과 외부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사고방식의 충돌로 인한 단층이 선명히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미숙(2001)은 이 시기가 중세 봉건 체제에서 근대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했다는 거시 정치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유의 체계와 삶의 방식, 규율과 습속 등 구성원 개개인의 신체를 변환시키는 차원까지 아우르는 우리의 근대가 시작된 기원의 공간이라고 하였다.

몸을 어떻게 보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는 의상, 미용 등 인체가 중심이 되는 디자인 전반에 근원적인 바탕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대한 연구는 디자인의 전개 이전에 탐구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잡지는 그 시기에 가장 대중적인 사고와 풍부한 시각자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여성지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박경미, 2003; 이순재, 2006; 주은경, 2003 등). 그러나 이제까지 여성지 분석을 통한 20세기 전반기의 몸에 대한 연구는 몸가꾸기에 국한된 구체적 현상에 대한 분석으로 화장법, 화장의 역사, 화장품 광고를 다루거나 사회적 변천에 따른 여성의 지위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변화한 미의식이 실제로 인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시각 자료를 보여주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전반기에 나타나는 인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몸가꾸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미용법과 이미지를 통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들이 스스로의 인체를 자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인식의 틀을 파악하고 그 시대의 시각자료를 통해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몸이미지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고찰하였고 20세기 전반부의 분석자료는 여성잡지 중 꾸준한 발행부수를 유지한 『여성』과 『신여성』을 중심으로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원본과 영인본 내용 중 화장과 몸가꾸기에 대한 기사 50종과 광고 196종을 수집, 분석하였으며 일러스트레이션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근대화와 인체

이영아(2008)는 한국에서 몸이란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존재하면서 정신, 사상, 윤리 등의 아래에 놓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인체란 오랜 역사 속에서 정신보다 덜 중요했고, 깊이 사유하거나 주목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존재하면서도 주목받지 못하던 몸은 현재 우리의 사회문화 속에서 우려를 낳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신체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 뿐 아니라 몸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데 집착하고 있다.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더 나은 외모를 가꾸기 위하여 미용이나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는 것에서 나아가 성형수술도 빈번히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실체인 몸을 어떻게 보고 받아들이는지는 사회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

문에 터너(1996/2002)는 구체화된 분석대상으로서 ‘몸’이 아니라 사회적 공간 속의 몸이 되는 작업인 ‘체현’이라는 관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의 우리나라는 일체의 식민상황으로 봉건사회에서 근대 산업화 과정을 스스로의 힘으로 열어나간 서구와는 매우 다른 체현의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유선영(2000)은 식민권력은 가시적인 육체와 행동을 규제하는데 주력하기 때문에 식민지 주민 또한 자신의 육체가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지고 무거워지는 느낌 속에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육체는 영혼에 의해 지배되는 하찮은 것이길 그만두고 오히려 육체적 존재로서의 자의식이 팽창되며 극도로 외부의 자극과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시선에 과민해져 간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식민지 조선인에게 있어서 육체는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통한 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한 육체이며 오로지 육체의 감각적 쾌락의 자유만이 허용된 육체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식민화로 인하여 근대적 산업사회로 자연스럽게 이행되어가지 못하고 전통적 규범을 제시하던 공동체의 위상이 급격히 와해되면서 가치판단의 준거를 잃은 개인은 사적 영역이 과잉 확장되었으며 노동하는 인체로부터 욕망하는 인체로의 전환이 피동적이며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이로써 우리사회에서 몸은 주목받게 되었으나 항상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고 스스로의 가치기준에 확신이 없는 불안정한 자아정체성을 지닌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새로이 주목받게 된 몸과 더불어 인체에 대한 미의식도 달라지기 시작하였는데 조선시대에 미인에 관한 글을 보면 상투적인 문구로 묘사되며 구체적으로 외모가 어떻게 아름다운지 표현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초생달 같은 눈썹이나 앵도 같은 입술은 모든 미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묘사이며 전하지는 미인도를 보아도 뛰어난 초상화의 묘사력과는 달리 정형화된 얼굴묘사가 많다. 미인을 한 개인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추상적 공동체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전통사회에서 외모 가꾸기에 관한 한 모성과 여성은 대척점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초상화로 보여주고자 하는 정숙함과 미인도에서 표현되는 매력적인 외모는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미인도로 그려지는 부류의 여인들은 기생 등 비천한 신분 여성이었고 여성미를 강조하는 진한 화장이나 요란한 옷차림은 천한 신분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잡지나 신문의 기사에서 학생과 부녀자의 차림새가 유흥업 종사자와 다르지 않다는데 대한 부정적인 지적을 볼 수 있으며

이로 미루어 볼 때 여성에게 요구되던 미와 부덕을 이원화 하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종래의 신분제에 의한 몸치장의 규율이 무너지면서 구별 짓기를 위하여 나타난 새로운 표식이 근대성이었다. 김경일(2004)은 근대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지배적이었던 식민지 사회에서 몸은 근대를 표상하고 그것을 과시하는 하나의 장이 되었다고 하였다. 도시 중류 계급의 상대적 성장과 대중매체의 보급 등으로 전통사회에서 억압되었던 신체에 대한 관심과 욕망이 자유로워졌을 뿐 아니라, 여성다움이나 여성의 미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점차 변화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전통적 여성상을 대신하여 “꽃같은 서양 여배우의 날씬한 몸매시와 미끈한 다리”가 근대의 표상으로 찬미되고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였다. 미의식의 변화는 외양뿐만 아니라 몸짓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몸가짐도 예의는 아니어서 방중해(1930)는 “지금은 댄스를 극장에서만 하지 않고 가두에서도 한다. 엄청나게 짧은 치마에 온 몸을 화장 이상의 화장을 하고 경중경중 으쓱으쓱하며 걸어가는 것은 꼭 댄스식 걸음걸이다. 만일 유성기나 라디오에서 마취곡조만 나온다면 당장 춤을 출 기세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윤성상(1937)은 “점잔은 귀부인도 화류계여성의 몸가짐을 본뜨려 한다”고 하였다.

전통의 인습에서 해방된 자기의식의 표현이자 근대화의 표상으로서 신체에 대한 강조는 한편으로 전통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였으며 전통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는 모순적인 반응을 초래하였다. 우리의 전통에 대한 인식은 강성원(1998)이 지적했듯이 이미 서구적 삶을 선망하고 동경하는 식민지 지식인 계층에게 조선인의 고유한 풍물과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민족의 부끄러운 모습인 동시에 전형으로 비취지고 그 결과 외국인이 우리 삶의 모습 중에서 가난한 풍경을 이국정서로 읽어 내듯 우리다움은 언제나 정태적이고, 문화인류학에서 거론되는 원시적 원주민의 이미지를 베일처럼 쓰게 되었다. 고미숙(2001)은 민족의 고유 미감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은 오히려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식 해석에 경도되어 조선의 미는 비애미와 한이라는 수동적인 미감이 받아들여지면서 “한”이 민족고유의 정서라는 착종이 일어났다고 주장하였다. 과거의 전통 중에서도 산업 발전과 계몽의 혜택을 받지 못한 토속적인 향토성만이 우리의 전통에 대한 향수로 포장되어 문화정책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마치 서양인들이 소수민족의 풍습이 사라져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스스로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월한 서양을 따라 하고자 하는 열망과 동시에 오리엔탈리즘적 가치관의 혼란을 내재하게 되었다.

윌링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권력이 몸을 보는 시각의 변화를 육(肉)으로서의 몸(flesh body)과 정신으로서의 몸(mindful body)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정신적 몸은 단순히 육(肉)적 대상이 아니라, 의식과 의도 및 언어를 소유한 것으로 정의되며, 전통사회에서 처럼 힘에 의한 통제가 아닌 감시와 자극에 의한 통제가 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푸코(Foucault)의 19세기 감옥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제도적 공간 안에 몸을 위치시킴으로서 정신을 통제하는 것으로 이는 비단 감옥의 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착취를 위한 인구의 조직화를 우선하였던 일제에게도 적용되는 사회적 공간의 모델이라고 하겠다. 전통적으로 숨겨야하고 은밀한 사적 공간에서만 가능하던 몸에 대한 응시에 국가 권력이 개입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지자 개인은 더욱 분리되고 몸은 부모에게 받아서 자식에게로 이어져 개인의 죽음 후에도 가문의 영속성을 통해 개체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인 자원으로 조성되어갔다. 공권력을 앞세워 상투를 자르는 것은 단지 두발형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서구적 개념이 사회라는 추상적 틀을 넘어 각 개인의 몸에 직접적, 폭력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진송(1999)은 사회의 가치를 담보하는 도덕관이 가치의 상실과 함께 무너져 내릴 때 그 파괴점은 항상 성과 육체를 둘러싸고 있으며 한 시기의 사회적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체득하는 곳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변화는 곧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특히 서양의학의 도입은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몸에 대한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것을 가속화하였다. 대표적으로 위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때의 위생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보다 훨씬 광범위하여 생활방식 전체를 보다 '근대적'으로 조직하는 것에 가까웠다. 몸 안의 음양조화가 깨어질 때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전통의학관과는 달리 질병은 세균에 의한 것이며 세균을 없애야만 선진국민이 될 수 있다는 위생관은 건강을 인체내부의 균형이 아니라 외부에서 침투한 질병과의 대립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위생이라는 공동선을 위하여 외부의 적인 질병을 퇴치할 목적으로 각 개인의 위생적인 생활이 장려되었으며 물 끓여 먹기와 화장실 사용 등 사소한 생활습관까지 지도하고 계몽하려는 시도가 뒤따랐다. 단발령을 시행하는 이유도 위생적이

고 편리하다는 것이었으며 위생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체는 점점 더 공격 시선에 노출되며 규율을 통해 통제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갔다. 부모의 3년상을 치르는 동안은 씻지도 않는 것이 효였던 가치관에서 몸을 건강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고 병든 개인은 곧 병든 민족이라는 국가적 위기감과 결합하여 더욱 의미를 공고히 하였다.

이처럼 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는 신체를 단련하기 위하여 운동을 한다는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노동이 아니라 신체를 단련하거나 즐기기 위해 몸을 쓰며 움직인다는 사고방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전통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스포츠는 그 자체가 구경거리였으며, 이제까지 조선의 유학자들이 평생시 존심양성(存心養成)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건강을 유지한다는 양생법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었다.

스포츠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이른바 애국 계몽 운동기에 건강한 국민이 강한 나라의 기초가 된다는 계몽주의적 의도로 국민건강과 신체의 단련이라는 차원에서 널리 보급되고 장려되었다. 일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스포츠를 통한 집단적 규율에 익숙하고 단련된 인체는 바람직한 것이었기 때문에 스포츠는 근대적 학교 제도에서 일종의 교양으로 수용되어 갔다. 모성으로서 건강한 신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여성들에게도 1920년대로 들어오면서 여학교에서 스포츠의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체조나 테니스, 기타 구기 운동이 유행함에 따라 여성의 위한 정구복이나 야구복, 기계체조복 같은 운동복이 등장하였고 1930년대로 들어와서는 하이킹, 등산, 수영, 댄스 등도 신체 훈련을 위한 종목으로 등장하였다.

이영아(2008)는 사회운동 차원으로까지 발전했던 위생학이 사회진화론적 인종주의에 혼합되면서, 모든 사회문제가 유전생물학적, 사회진화론적으로 해석되었으며 문명한, 우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구성원이 우등한 인종들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우등한 인종이란 발달되고 건강한 신체를 기본 조건으로 한다는 사고가 받아들여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진화는 사회라는 추상적 집단 단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국민들의 몸, 유전자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자각을 통해 인간과 국가의 운명은 개별 국민의 '정신' 이전에 '육체'에 의해 흥망이 결정되는 것이라는 사고가 팽배하게 되었으며 몸을 단련하기 위한 스포츠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박봉애(1937)

는 신여성의 미가 건강과 신체의 균정한 발달에 있으며 가정의 화락과 행복이 찬란한 의복과 꾸미는 화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아름다움은 반드시 체육으로 단련된 진정한 육체미에서 오기 때문에 생활이 복잡해질수록 우리 살림이 가난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더 이 체육문제를 연구하고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건강뿐 아니라 아름다움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몸이 더 이상 나 자신만의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 등장하여 남에게 보여지는 것으로서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타인에게 보여지는 몸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가치 평가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하겠다.

신체를 단련, 건강을 유지하고 특히 여성들에게는 튼튼한 2세의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장려되었던 스포츠는 강한 민족으로 거듭나기 위한 민족적 자각에서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1930년대 이후 전시여성의 동원이라는 제국주의적 의도로 변질되어 갔다.

2. 여성의 인체

1) 이중적 타자화

유선영(2000)은 식민지 조선인에게 자의식은 중심 잡힌 개인 주체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구성되는 공적인 자아(self public)에 의해 지배되고, 타자의 시선을 통해 주체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상황에서는 심리적 불안감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민지의 남성들은 지배국의 시각을 내면화하여 그들의 시각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오랫동안 억압받아왔던 여성은 그런 남성의 시각에 의하여 다시 타자화된다. 이때 새로운 준범으로 서구인의 인체가 등장하였는데 김진송(1999)은 1920, 30년대의 언론이나 대중잡지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담당하고 있었던 화가들의 육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곧바로 대중들의 육체에 대한 미적 체험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그들이 그렸던 서구적인 이미지는 매우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고 하였다. 서구 인물화의 전통은 인물을 여러 가지 우의적 상징의 매개체로 상징하여 인체미에 대한 탐구가 진리에 대한 탐구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수치화된 인체 비례를 통한 미적 균형의 전범이 다양하게 발달되었고 그것을 인물화로 표현하여왔다. 예술이라는 전제하에 나체의 여성을 관찰하고 그리는 화가들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였으며 화가나 작가 등 남성 유명 인사들은 여성

의 육체적인 미의 기준을 잡지에 발표되는 대담이나 기고 등을 통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었다. 그즈음의 지식인들에게 인체에 대한 언급은 근대에 정통하다는 반증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들은 몸이 하나의 예술품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만큼, 자신의 미적 취향, 예술적 심미안을 과시하기위해 ‘아름다운 몸’의 기준을 최대한 자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했던 것이다(이영아, 2008). 오늘날에는 오히려 외모지상주의자라는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인물평가도 볼 수 있는데 심지어 김용준(1936)은 피부빛이나 체형 등 체격적으로 보잘 것 없는 조선여성을 모델로 해서는 그림 그림 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남성의 판단이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하였으나 몸매시 등 여성의 영역이라고 인정되는 부분까지만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근대 산업사회는 기본적으로 힘과 스피드를 숭상하는 남성적 가치기준이 우세한 시기였기 때문에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을 대상화 하여 오히려 여성 자율적이었던 부분까지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새로운 문물을 접할 기회로부터 차단되어 있던 조선의 여성들에게는 새로이 부과된 인체에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근대화를 받아들이는 방법의 하나였다고 하겠다. 1930년대 초에는 이미 쌍꺼풀과 코를 높이는 등의 서구형 외모를 따라가기 위한 성형수술이 시행되었으며 여성의 신체에 대한 관심은 튼튼한 2세를 출산하여 강한 국가를 만든다는 것에서 나아가 서구의 근대적인 미의식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바뀌어 갔다.

2) 여성의 상품화

일본의 소비시장으로서 조선의 역할이 진행됨에 따라 여성의 인체는 광고를 통한 욕망의 부추김에 적극 활용되는데 여성과 성을 상품화하려는 경향에 대한 그러한 우려들은 1927년 서울거리의 모든 간판 그림의 7, 80%가 꽃 아니면 여자라는 현실로 등장했다(김진송, 1999). 오늘날에도 문제시되고 있는바와 같이 여성의 성적매력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여성 또한 교환가치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특히 식민화된 조선은 피동적이고 이국적인 에로티시즘이 덧입혀진 여성으로 상징되었고 이러한 이미지는 기생과 부합되었다. 기예를 전문으로 하던 기

생과 그렇지 않았던 기생의 역할구분이 분명하던 전통은 1920년대 일본의 문화정책에 의하여 구분이 모호해 지면서 일본적인 호색적 성향만이 강조되었고 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 적용되던 미적 기준의 구분이 서구형으로 모아져가면서 오히려 기생은 그 시대의 미적 아이콘이 되었다. 일제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조선 소개 책자와 사진엽서에는 대표적인 조선의 여성과 풍속으로 기생의 모습이 실리게 되었다.

김진송(1999)은 기생들이 1930년대 현대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적 주체로 전환되었으며, 새로운 직업군으로서 도시의 서비스업에 속한 직업들이 부각되고 그중에서 기생출신이 가장 많았다는 것은 바로 기존의 지배층 중심의 문화에서 대중문화가 생성되고 증폭되는 과정에서 기생 혹은 기생의 새로운 직업들이 지니는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였다. 대중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대중적 공간과 미디어의 중심에는 항상 기생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대중문화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영화출연, 음반 발매등 연예사업과 그 당시 새로 생겨난 형태의 유흥업소에서 새로운 유행을 주도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대중문화의 파급력과 함께 성을 상품화하는 기생의 이미지는 은연중 모든 조선 여성에게로 전이 되어 식민지 여성들이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3) 페미니즘적 각성

조선 여성을 기생으로 대변되는 수동적 에로티시즘과 동일시하는 시각과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 인간으로서 자각하게 되는 각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구한말 동학 혁명기를 전후해 조선의 여성들은 가부장제 봉건사회의 남존여비 사상에 의문을 느끼며, 이를 바꿔야 하고 여자에게도 인격이 있다는 자존의식에 눈뜨기 시작했다. 외래문물의 유입과 민족내부의 혼란한 틈바구니 속에서도 여성도 인격적 주체라는 의식이 생길 정도로 여성들의 자각은 성숙해 갔다(강성원, 1998). 국채보상운동에 금반지를 팔아 적극 동참하는 등,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국민으로서 나라에 대한 책임과 그만큼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인식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회적 참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한 2세를 출산하기 위하여 건강한 모체가 필요한 것처럼 제대로 된 2세 교육을 위해서는

어머니가 될 여성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근대 여성교육은 한일 합방을 전후한 시기부터 실시됐다. 관립여학교가 생기고, 기독교 계통의 선교사들이 세운 사립여학교들이 생겨나면서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 부분적으로나마 시작됐다. 앞서 언급한 스포츠에서 민족적 의도와 일제의 의도가 신체단련이라는 수단에서 일치하였듯이 내선일체를 위한 방편으로 충량한 신민을 만들 요량으로 기획된 여성에 대한 교육은 결과적으로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문물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지식인과 해외 유학과 여성들도 점점 늘게 되었고 이들이 모두 민족적 자각에 투철한 것은 아니었으나 인간으로서 자각에는 계몽적 역할을 하였다.

III. 기사 및 광고분석 결과

1. 「신여성」 기사분석

『신여성』은 1923년에 발간되어 1926년까지, 1931년에 재발간되어 1934년까지 최소 70권 최대 76권을 발간한 것으로 보이며 국립도서관에서 원본과 영인본을 합쳐 48권을 확인하였다. 확인된 초기 발행본 25권 중 17권에는 몸단장에 대한 기사나 화장품 광고가 하나도 없었으나 재발간된 후부터는 매호 기사나 다수의 광고가 실렸다. 몸가꾸기에 대해 언급된 모든 기사를 수집하였으며 총 17종을 확인하였다.

미의식은 초기와 재발간 후 두 시기에 큰 차이가 있다.

1920년대의 『신여성』에는 화장법 소개 등은 없고 오히려 화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1925년 2월 “젊은 여성의 육체미, 실질미”(배성룡, 1925)라는 기사와 1926년 7월의 “신여자백태”(1926)라는 만화에서는 신여성의 몸치장에 대해 매우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1926년 3월 기사 “女性的 雜觀雜評”(1926)를 보면 “서양여자머리털은누르고곱술곱술한것이특징이오동양여자머리털은검고반지르한것이특징이다. 그런데근래에소위하이카라의녀자들은 머리털을일부러던괴로지저서곱술곱술하게만들고썬누령약칠까지하야가면의서양녀자노릇을하랴고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같은해 6월의 기사 “自然美의化粧法”(1926)에는 눈썹을 가볍게 그리고 연지를 바르는 정도의 연한화장으로 자기가 타고난 개성미를 보존하

라고 주장하면서 “자극의얼굴을 생각도안해보고 눈썹을식뼀엇케그리든지 사람이라도잡어먹은것것치피도록 입살에다 잔썩 연지를칠하는것은 얼굴을밧게보일망정 결코입부게는안보인다. 옳다(低)고하여 코에만하얗게 분을바른다면 아!저사람은 코가엿고나하고 사람들이생각하게할뿐이지 결코놉하되이지는안는다.”라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분을 많이 발라 모양을 내는 것보다 손을 깨끗이 하고 손톱을 자주 깎고 동정을 자주 가는 것이 더 예쁘게 보인다는 기사로 미루어 볼 때 오히려 청결보다 화장에 관심을 두고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화장을 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신여성식 차림이 아니라 외출 시 연한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1926년 8월 조선여성으로는 처음 미용술을 배워온 오엽주를 소개하는 글에서 “가난방이 조선여자에게도 의젓하게 화장을 하고 나설날이 있슬닌지는 모르지만”이라는 문구로 보아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목구비를 선명하게 하고 콧대를 강조하는 서구식 화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기사와는 달리 1925년 8월의 표지 그림은 진한 화장을 한 서양식의 인물을 보여주고 있는데 같은 해 2월의 인물상과는 상반되는 미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그림 2).

1920년대 초기에는 유행을 일부 소개하거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쳤으나, 중반기부터는 의복의 세탁, 염색 등 관리법, 양제 편물법과 더불어 피부 관리법 등으로 점차 영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1931년 제발간 후 기사에서는 미의식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는데 모발과 여성미(“미인제조교과서”, 1931)에 대한 기사에서 곱슬머리라면 쪽지지 말고 오히려 양풍결발을 하라고 권하고 있고 또 다른 기사에서는 양식결발에 필요한 아이론 쓰는법(심명숙, 1931)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미인제조법이라는 제목은 미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고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서양여자를 따라한다고 비난받고 과거에는 병으로 여겨졌던 곱슬머리가 유행으로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조선 여학생은 배우들처럼 분을 너무 많이 바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므로 미국 여학생처럼 3분안에 되는 검소한 화장법(유소제, 1931)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세안법, 화장법, 주름 안 생기는 목욕법, 살색회계하는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몸단장에 대한 포괄적 견해를 밝히던 1920년대와는 달리 화장기술과 화장품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체형에 대해서는 야위고 멀숙한 키가

확실히 보기 좋다고 언급하고 있다(“女人島”, 1931).

1932년 10월 미용강좌에서는 아름다워지는 방법은 건강과 화장이고 건강은 규칙적인식사와 운동을 통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장으로 가릴 수 없는 피부문제로 “흑색의피부, 잔주름살, 큰털구녕, 밝안코, 체중이 너무 무거운것, 너무 가벼운것, 다만, 수족냉증, 눈밧헤있는검은테, 머리털을 남부게하는 피부의 질환”을 들고 있으며 체형은 “홀죽하고 고상한” 것과 “밧업시 똥똥”한 것을 대비하고 있다.

1933년 6월 “淑女備忘帖”(1933, 6)에서는 분, 크림, 비누의 종류와 평가, 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백분은 불란서산을 최고로 그 다음은 미국산으로 등급을 주었으며 상표별로 9종의 상품명을 열거하였으며 토산품은 ‘三好’, ‘朴家’ 그 외에 무상표제품들이 있으나 품질이 조악하다고 평가하였다. 백분의 색조는 제조사마다 이름이 다르지만 白色(란시) 肌色(란셀) 茶褐色(오오콜)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재는 란셀과 오오콜의 중간색이 유행한다고 하였다. 肌色(기색)은 살색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동양인의 일반적 피부색으로 볼 수 있는데 다갈색과 살색의 중간 정도라고 하는 것은 피부색을 아주 밝게 표현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란서제로 2원 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화장용 크림은 유성 크림과 무유성 크림, 맛사야지 크림으로 나누어 용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피부청결용과 야간 크림으로 쓰는 콜드 크림, 분바르기 전에 쓰는 바니싱 크림이라고 볼 수 있다. 값은 50전에서 4, 5원까지이지만 1, 2원이면 쓸만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17원짜리도 있었다. 그 외에 비누에 대해서는 일본산도 쓸만하니 더 먼 곳의 물건을 쓸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고 있고 머리를 감을 때는 목욕용 비누를 쓰면 머리가 붉어지거나 부서지기 쉬우니 ‘샴푸’-를 쓰라고 권고하고 있다. 샴푸의 종류도 액체, 분말, 고형이 있었는데 여행용으로는 고형이 평상시는 액체가 쓰기 좋다고 평가하였다. 1933년 7월 “淑女備忘帖”(1933, 7)에는 집에서 아이론으로 머리에 웨이브를 만드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곱슬머리를 만드는 것이 더 이상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외국에는 파마넨트 웨이브(permanent wave)를 쓰고 있으나 아직 우리 땅에는 없다고 하였다. 같은 기사에서 연지의 색상이 전에는 오랜지색이 유행하였으나 점점 더 진한 색이 유행중이라고 하였으며 눈썹은 “흑색과 다색 중 다색을 만이썩



<그림 1> Sinyeosing
신여성 표지화
1925. 2



<그림 2> Sinyeosing
신여성 표지화
1925. 8



<그림 3> Sinyeosing
구라부백분 광고
1931. 6



<그림 4> Sinyeosing
구라부백분 광고
1933. 6

다. 실낱같은 눈썹을 곱다라케 그리는 것은 보기에 흉한 것은 아니지만 그 언저리의 푸른자죽은 보기에 딱한 것이다. 지개나 또는 약품으로 아서자죽이엿게 하는 것이 조울 것이다. 눈썹을 그리는 법은 어려운 모양인 것이 길게 그려도 웃음고 아도 어색하니 그사이를 보기조케擇하라.”고 하였다. 다색눈썹, 진한 입술연지, 집에서 하는 머리 웨이브 등이 1920년대와는 달리 부정적 비판 없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구라부백분 광고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인 미의식도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그림 3)-(그림 4).

2. 「여성」 기사분석

『여성』은 조선일보사 출판부가 발행한 여성 월간지로 1936년 4월부터 1940년 12월 중간되기까지 통권 57호가 발간되었으며 국립도서관에서 원본과 영인본을 합쳐 49권을 확인하였다. 100페이지 내외의 충실한 내용과 색도인쇄, 세련된 편집 등 여성잡지 중 가장 괄목할 만하다. 기사의 형태도 설문형, 문답형 등 다양해졌으며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자료도 풍부하다. 미용이나 몸가꾸기에 대한 전문 색션과 기사가 활성화되었으며 총 33종을 확인 하였다.

1930년대 전반과 비교하여 기사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화장의 중요성을 계몽하고 서구적 화장법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장에서 었는 여성의 영동”(오숙근, 1937)에는 계절별로 어울리는 화장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으며, 몸단장을 하면 심신이 상쾌하고 명랑해지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주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예술이 인류문화의 최고 수준이라면 화장은 시대의식의

최대발로라고 하였다.

1936년 4월 기사 “봄화장”(정화정, 1936)에는 얼굴형에 따른 화장법과 함께 코를 높게 보이고 눈을 크게 보이는 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입술연지도 너무 큰입이 아니라면 조금 진하게 바르고 “自然의美 그대로가 좇이만도 오늘날의 있어서 多少間人工의美을 加하는것도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같은해 7월 “化粧秘訣문답”에서는 “무엇보담도 코가얼굴美點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前에는 手術을하면 코가뽀아지는 이뻐뚜러지는 이하였지만 近來에 와서는 注射로 높일수 있으며 害가없답니다.”라고 답하였다. 심지어 “화장을 갖나온 이들의 화장”(1939)에서는 너무 큰 윗방울 축소성형술로 모양을 아주 예쁘게 만들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유행에 나타난 현대여성”(윤성상, 1937)이라는 기사에는 “지저붓친머리에 알록달록한옷에 뽀족구두를 신고 요염한 화장과 야릇한 몸짓을 하는 소위모던걸이라는 것을 연상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양장에 어울이는 체격이라면 자기취미대로 양장을 하는이도 물론 좇코 단조로운 순색보다는 조화와 통일을 일치안흔 복잡한 색깔의 의장이 우리눈을 더즐겁게 합니다만 섯부른 솜씨라면 찰하리 검은치마 흰저고리의 수수한 우리옷이 훨씬 더 정다워 보이고 점잔어 보일 뿐아니라 왁살스럽게 지저붓친 머리라든지 너머깃흔 화장보다는 동양사람인 우리얼굴의 특징이고 아름다움인 온화하고도 청초한 맛을 한길 더 살닐수잇는 부드럽고도 옅흔 꾸밈이 얼마나 더고상해 보이는지 알 수 업습니다.”라고 하였다.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은 이미 화려한 서구식 차림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혼화장법”(오숙근, 1937)에는 상세한 화장법을 안내하고 있는데 피부는 두 번 분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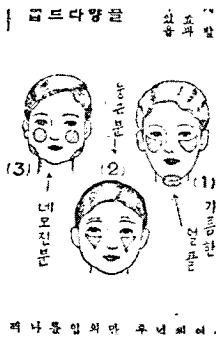
하여 화사하게 표현하고, 콧마루는 흰분을 질게 바르고 코 양쪽 들어간 곳에 줄을 긋듯이 연지를 칠해서 강조해주며, 입술은 작지만 선명하게 강조하며 외곽선을 더 진하게 하고, 눈썹은 가늘고 끝이 흰 유미(柳眉)를 그리는데 눈썹에 칠하는 먹과 아이섀도로 눈을 크게 보이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눈화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근대인의 심리에 요구되는 눈은 어덴지 으늑한구석이 있는 어글어글한 눈 소위 [참잉]한눈이 그것일 것입니다. 여기에 마치기위하여 작은눈에는 [아이섀도]로 [깜푸라쥬]를 한다. 또는 속눈썹에 [매스크]나 [아이렛쉬 메이크업]칠을 한다 가지 기교를 다합니다. 그래서 내리감으면 룡문산(龍門山) 골짜기에 안개가 서린듯하고 치뜨면 칠면조(七面鳥) 꼬리퍼듯눈썹끝이 부채살처럼 들고니러서야만 소위첨단미(尖端美)를 갖춘화장”이라고 하였다. 최혜원(1938)은 “보매고상한 현대식화장의 비결은 연지를 매력있게 찍는데있다.”라는 기사에서 얼굴형에 따른 연지 찍는 방법을 삽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그림 5). 화장이란 원래 발르고 칠한것 같이 하는 것은 능란한 솜씨라고 할 수 없으며 안한듯하게 연하게 은근히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니 요즈음의 화장법과 다르지 않다. 그 외 다른 기사에서도 얼굴의 특성, 옷색깔, 계절 등에 따라 연지 찍는 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퍼머넨트 웨이브가 도입이 되었으나 약품을 다루는 기술이 아직 미숙하여 모발손상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두발관리에 대해서는 꾸준히 기사를 볼 수 있다.

또한 화장 이전에 꾸준한 피부관리를 강조하는 것도 이전과는 다른점으로 스팀타올, 콜드 크림 등을 이용한 맛사지와 꼼꼼한 세안법 등은 오늘날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손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으며 가정에서 힘든 일을 하니까 손이 거칠다는 것이 감격스럽기는 하여도 보기좋은 손은 여자의 수치라고 하였다. 자연재료를 이용한 피부관리법도 꾸준히 소개되는 항목의 하나이다. “화장품은 손수 만들어 씹시다”(오숙근, 1937)에는 친환경적인 의미보다 고가의 수입품인 화장품을 사기 어렵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우선되고 있는데 가난한 조선여성들이 수입품인 화장품을 사용할 수 없으니 제조법을 보급하여 자급자족하고 남는 것을 물물교환하자고 주장하였다. 1937년 6월 “얼굴히게하는 비법공개”(오숙근, 1937)에서는 값비싼 고급화장품만 쓰지 말고 꿀, 흑설탕과 겨, 레몬, 우유, 붕사가루, 달걀, 옥시풀을 이용하여 자연팩을 만들어 쓸것을 권유하였는데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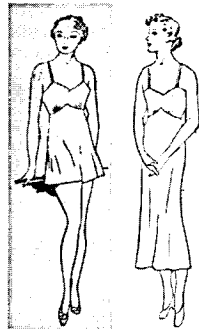
와는 달리 그 당시 상당히 고가의 재료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이때의 특징 중의 하나는 과학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것인데 “식물미용법”(1938)에서는 외국학자의 연구결과를 빌어 세포조직으로부터 근본적인 미용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창포뿌리, 백합뿌리, 양상치, 실차초, 피마자유, 호프잎차, 장미수, 페르밀즙, 솔잎 등을 이용한 미용법을 소개하였다.

전신미용에 대한 관심도 중요한 내용이다. 해수욕, 등산할 때 여행할 때 등 야외활동시 화장법과 안다는 방법, 더 나아가 곱게 태우는 방법도 소개되고 있는데 이처럼 야외활동이 많아지면 팔, 다리, 발 등이 노출되고 시선을 끌게 되므로 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전신미용에 대한 기사도 볼 수 있다. “9월 화장”(오숙근, 1936)에서 “여름양장(洋裝)에는 선(線)의 미 백퍼센트의 팔과 다리의 서늘한 [리즘]을 맛보게됩니다. 얼굴에서 [센치멘탈]한 립체미(立體美)를 찾을 수 있다면 팔과다리에서는 밋칠한 [스류림라인](流線)의충동을 받을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다리는 탈모 크림을 이용하여 제모 후 크림과 분을 발라 각진미를 발휘하고 가죽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팔뚝꿈치관리도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였다. 여름에는 맨발에 샌들 차림을 한 신여성도 많으니 패디큐어도 곧 유행이 될 거라는 기사도 볼 수 있다(“新春化粧室”, 1937). 이처럼 몸가꾸기에 대한 관심이 인체 전체로 넓어지고 있는데 이는 “女性體格 向上에 對하여”(박봉애, 1937)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部分에局限된美는벌써過去時代의標準이였고 오늘現代女性의美의標準은 部分部分을綜合한即 匀称의아름다움 健全한 體質 發育된 筋肉 이것이잘調和되고女性獨特의曲線美를 表現하는데 있다.”고 하였으며 “體格을向上식히는그곳에 비로소우리美의標準”이 있고 “歐米에서 1936年度代表美人타입이流線型이라야한다고 體重이13貫内外 身長이5尺조곰넘고 몸이날신한 이러한것을發表하기가무섭게 그標準이 東洋女性에갓가뵈기때문에 머리도流線型, 의복도流線型, 구두도流線型甚之於햇도백까지流線型이라고 야단”이라고 하였다. 이 시기의 다른 기록에서도 유선형이 대당한 관심을 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관은 3750g 1척은 30.303cm이므로 체중은 약 48kg 키는 151cm가 좀 넘는 정도의 체격이다. 속치마 만드는 방법에 묘사된 인체는 이 시대의 체형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6).

몸에 관한 관심으로 향수의 사용법, 미용과 체중조절을 위한 영양섭취에 대한 기사도 나타나고 있으며



<그림 5> Yeosung
연지 찍는 법
1938. 2



<그림 6> Yeosung
속치마 만드는 법
1937. 8

문답형 기사는 여드름, 기미, 죽은깨, 잡티, 지성피부, 잔주름 등 문제피부상당과 비듬, 대머리, 머리를 자주 지져서 머리카락이 빠스려진다는 등 두발문제, 외국어가 많은 관련 단어설명 등 용어설명을 자주 볼 수 있다.

화장 순서는 일반적으로 세안 후 화장수나 바니싱 크림으로 피부를 정돈하고 분, 눈화장, 입술화장을 차례로 하고 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긴축과 제한이 실시되면서 수입품 금지령이 내려지는데 1938년 5월 기사에서는 중과세와 수입금지로 수입화장품에 대한 매점매석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로 외국산과 같은 고급품을 만들겠다는 화장품 업계의 다짐과는 반대로 사회가 점점 더 피폐해지는데 따라 몸단장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 되고 여성지는 1940년 12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된다.

3. 광고분석

기사는 대중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계몽적으로 앞서가는 면이 있으나 광고는 보다 일반적인 필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광고는 같은 광고의 경우 중복 계산하여 『신여성』 초기 발행본에서 3편, 재발간 후 90편을 확인하였고 여성에서는 총 103편을 확인하였으나 결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큰 의미가 없지만 어떤 분포를 보이는가는 화장품 사용 시 추구혜택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먼저 『신여성』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의 광고는 염모제와 향유 광고이다. 제품종류는 5종 총 50여편으로

염모제의 경우 윤기있는 검은머리를 강조하면서 붉은 머리와 흰머리를 검게 만든다는 것 외에 곱슬머리를 펴준다는 문구도 볼 수 있는데 아직 웨이브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았다는 반증이 되겠다. 향유는 양모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피부관리용으로는 크림종류와 화장수가 있으며 제품종류는 4종 총 20여편의 광고를 확인하였다. 피부를 희게하고, 부드럽게하며, 젊어보이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크림은 콜드 크림과 같은 유성 크림과 바니싱 크림으로 불리는 중성 크림으로 나뉘어지는데 콜드 크림은 맛사지 후 닦아서 제거하고 바니싱 크림은 분바르기 전에 밀화장용으로 쓰였다. 이 때의 크림은 미용효과뿐 아니라 살이 트거나 벌에 그을리는데, 먼도 후 등 다목적으로 쓰였으며 특히 화장수는 여드름, 죽은깨, 잡티도 제거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일러스트레이션이기는 하나 누드가 사용되었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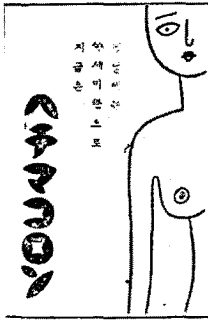
백분 광고는 2종 10여편으로 남성분이 들어간 백분에 대한 부작용의 영향으로 과학적으로 제조된 무연백분이라는 것과 지속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 외에 화장품은 아니지만 로-도 안약 광고는 눈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였는데 『신여성』 1933년 8월의 기사형 광고는 “매력이 적은 동양사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서양인의 눈에 비하면 해박은 눈의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여성』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의 광고는 피부관리용 화장품으로 9종 40여편, 백분 4종 40여편이다. 그 다음으로 세안제와 비누 10여편, 손발전용 크림 10여편인 반면 두발 관련 제품은 5편으로 현저히 줄고 색조 화장품으로 구로바 연지 광고가 있다.

피부관리용은 여드름 치료나 미백전용 등 전문적 효능을 강조하는 제품이 등장하였으며 과학적 제조방법을 통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결을 정리하여 젊어보이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레도 크림 광고는 추상화된 인물<그림 8>-<그림 9>과 비교적 사실적인 인물<그림 10>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두 낫날이 길게 강조되었다.

헤치마 화장품은 꾸준히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광고를 진행하였는데 개성적이고 아름다운 인물상<그림 11>-<그림 13>에서 점차 창의력이 부족한 묘사<그림 14>-<그림 15>로 변해 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전황이 격화 되면서 아름다움을 위한 몸치장이 백안시되고 건강만이 강조되는데



<그림 7> Sinyeosing 헤치마 크림 광고 1932. 11



<그림 8> Yeosung 레도 크림 광고 193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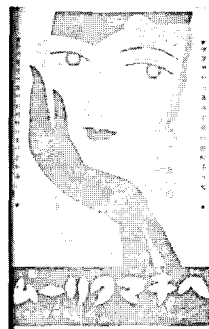
<그림 9> Yeosung 레도 크림 광고 193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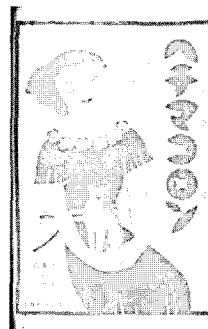
<그림 10> Yeosung 레도 크림 광고 1937. 5



<그림 11> Yeosung 헤치마 크림 광고 1936. 11



<그림 12> Yeosung 헤치마 크림 광고 1937. 2



<그림 13> Yeosung 헤치마 크림 광고 193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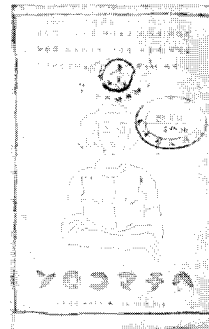


<그림 14> Yeosung 헤치마 크림 광고 1938. 4

다른 결과라고 하겠다.

백분은 피부색에 따라 다양한 색조의 제품을 구비하고 있었는데 가장 많은 광고회수를 보이고 있는 당고도-랑은 7종이 있었다. 일반부인肌色(러셀), 빛갈힌부인白色(화이트), 파르스름한분淡紅色(핑크), 히지안튼분早曉色(薄卵色), 창백한분爽健色(濃肌色), 붉오죽죽한분新鮮色(白綠色), 침단적미용明朗色(薄茶色)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마스터는 6종으로 빛나고 생기있는 피부표현과 지속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1937년 10월 광고는 “살어있는불란서인형 그것은 당고도-랑으로 화장한 당신을 말한것”이라고 서구 지향적이 된 미의 기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939년 11월에는 일본의 상류부인과 영화스타는 모두 애용한다는 쌍꺼풀 만드는 광고도 있다(그림 16).

전쟁과 더불어 화장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대신 승전을 독려하는 문구가 쓰였는데 1937년 11월 자생당 크림 광고는 “총후의 수호는 여성의 몸단장에서, 좋은



<그림 15> Yeosung 헤치마 크림 광고 1939. 1



<그림 16> Yeosung 쌍꺼풀 미안기 광고 1939. 11

크림으로 살결을 튼튼히 해둡시다.” 1938년 1월 당고도-랑 광고에는 “황군 이기세요”, “경제실질의 살결수호”, “표준애국화장품” 등의 문구로 화장품과 전쟁을 억지로 연관시켜 왜곡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세안

크림은 여드름, 죽은개 등 피부문제를 치료하고 피부색을 희고 젊게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손발전용 크림은 노동에 의하여 거칠어진 손을 방지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

지면광고뿐 아니라 화장품 선전(“여자혼자경영할수 있는상점”, 1938)을 위하여 모델들이 화장품 상점을 순회하거나 전문 미용사가 화장법 강습회를 여는 일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의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몸가꾸기를 <표 1>로 정리하였다.

대중잡지 삼천리는 1935년 미용제조법(이영아에서 재인용, 2008)을 소개하면서 “우리조선에서도, 건강적이며 원만하게 근세가 잡힌 완전한 체격이래야 가장 현대적 미라는 사조가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어, 어떻게 하면 보다 훌륭한 스타일의 소유자가 되어볼까하는 모던급의 남녀(더욱이 여자) 등이 많아 감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에는 미용술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발달되어서 현대인이면 반드시 미용술에 의하여 자기의 가진 선천적 미에, 인공을 가한 후천적미를 가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모던’사회에 있어서는 그 사교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감을 느끼게끔 된

현상이다.”라고 하였다.

신체발부수지부모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인체관과 상반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신의 신체는 타고난 결과가 아니라 계획에 의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며 의도적인 작업의 결과로 인식하는 이른바 ‘몸 프로젝트’ 개념이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몸을 가꾸었는가 하는 것으로 사회적 차별화를 획득하고 이러한 구별짓기를 통하여 부르디외(Bourdieu)가 말하는 문화자산으로서의 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현대인에게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인 몸은 생물적 실체이지만 몸을 어떻게 보고 받아들이는지는 사회적으로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인체에 대한 미의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외상디자인이나 뷰티디자인 등 인체를 주된 관심영역으로 하는 분야에서 디자인 전개 이전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20세기 전반기에 새로이 조성되어가는 몸

<표 1> 미의식과 몸가꾸기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전 반	후 반	
미의식	자연미 강조	서구미 도입	인공미 강조 인체 전체에 대한 관심	건강미 강조
체 형	언급없음	홀쭉 고상 멋없이 뚱뚱	체중 13관 내외 신장 5척 내외 유선형	튼튼한 신체 강조
기초화장품	크림, 코롱	세안 크림, 표백 크림, 쿨드 크림, 바니싱 크림	무지방성-바니싱 크림 지방성-쿨드 크림 중성-마사지 크림, 하이제 크림, 기능성 크림(쿨드로 대응), 크린싱 크림	전쟁으로 인한 암흑기
색조화장품	연지, 미륵, 분	연지, 미륵, 피부색에 따른 분 (자색, 황색, 살색)	분(6~7종) 아이샤도우 아이래쉬 메이크업 섀넨	
두 발	미려한 흑발 곱슬머리나 붉은머리를 터부시	마-세루 웨이브 노란염색	파마넨트 웨이브 도입	머리수건
손, 발관리	(언급없음)	손화장법	팔, 다리, 발톱관리	*
성 형	*	*	쌍꺼풀 음비성형술 가슴축소술	*

이미지와 미의식을 정리하고 그것이 몸가꾸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미용법과 이미지를 통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이 스스로의 인체를 자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시기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외세에 의해 급격히 와해되면서 몸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징가치를 지닌 것으로 새로이 인식되었고, 신분에 의해 규정되던 몸가꾸기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외부의 시선에 과민한 상황이 되면서 나타나는 체현의 과정은 우리의 미의식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신체발부수지부모의 전통적 인체관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대상으로 인체관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미의식도 자연적인 미를 강조하는 것에서 가꾸고 만들어 나가는 미로 바뀌었으며 1920년대까지는 건강과 자연스러움이 강조되는 반면 1930년대 초에는 서구적인 미의 기준에 받아들여지고 1930년대 후반에는 서구적 미를 추종하는 인공적인 미가 강조된다.

2. 정신을 우위에 두던 가치관에서 인체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은 몸을 단련하기 위한 운동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위생에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강인한 인체는 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민족적 자각과 동시에 착취 가능한 노동인구양성이라는 일제의 의도와도 상통하였으므로 국가적으로 장려되었다.

3. 사회적 감시망이 강화된 공적 영역에 노출된 인체는 타자화된 시선으로 스스로를 보게됨으로서 불안정한 자아정체성을 갖게 되고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통제는 몸에 대한 규제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겪는 인체는 외부 시선에 과민하고 사적 영역이 확장되어 욕망하는 인체로서의 특성이 강화된다.

4. 피지배자의 수동적이고 이국적인 에로티시즘이 덧입혀졌다.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기생이 있는데 조선을 약하고 수동적이고 문명화되지 못한 여성으로 의인화 하면서 식민지 지식인들도 스스로를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은 그러한 남성들의 시각에 의해 다시 타자화 되었다.

5. 전통적 가치기준이 와해되면서 서구의 문물이 근대라는 판단준거가 됨에 따라 서구화가 급격히 이루

어졌다. 외세에 의해 도입된 폭력적인 근대 산업사회의 변환은 전통적인 기준은 낡은 것이고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자긍심보다는 탈피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면서 전통적 가치관이 급격히 사라지게 되었다.

6. 교육과 서구적 사고의 영향으로 여성으로서 인간적인 권리에 대한 자각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남녀평등이라는 새로운 사고에 따라 여성에게도 교육, 사회참여기회 등을 통하여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면서 여성에게 주어지던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 행동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으며 이는 몸치장을 통해 표현되었다.

이러한 미의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미인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화장법을 통해 본 이상적인 얼굴형은 1920년대에는 타고난 자연미를 강조했으나 1930년대로 오면서 큰 눈과 오목한 코를 강조하고 대부분 서구여성을 모델로 한다.

2. 진한 화장은 전통적으로 비천한 계층의 화장으로 생각되었으나 진한 화장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통해 과거와는 달리 비교적 진한 화장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스로를 가꾸는 것은 계층을 막론하고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

3. 화장품과 피부관리법은 부드러운 살결과 흰 피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흰 피부는 모든 용도의 화장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3. 화장법이 서구적인 것과는 달리 두발은 검고 윤기 있는 머릿결을 더 중시한다.

4. 운동과 여행, 계절에 따라 팔, 다리, 발등 전신관에 대한 개념도 낮설지 않다.

본 연구는 기획 당시 전통적 미의식과 새로운 미의식이 혼재하는 시기로 20세기 초를 상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연구결과 이미 서구 편향적이 된 미의식을 발견하게 되었다. 후속연구로 20세기 이전과 후반 이후에 대한 연구로 미의식의 변화 추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참고문헌

- 강성원. (1998). *한국여성미학의 사회사*. 서울: 사계절.
 고미숙. (2001).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민족·책슈얼리티·병리학. 서울: 책 세상.
 김경일. (2004).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서울: 푸른 역사.

- 김용준. (1936, 9). 모델과 여성의 미. *여성*, p. 20.
- 김진송. (1999). *현대성의 형성, 서울에 판스홀름을 허하라*. 서울: 현실문화연구.
- 미인제조교과서. (1931, 4). *신여성*, p. 76.
- 박경미. (2003). *화장품 광고에 나타난 여성상의 미의식 고찰*.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봉애. (1937, 1). 女性體格 向上에 對하야. *여성*, p. 32.
- 방춘해. (1930, 11). 복색에 가지가지. *별건곤*, p. 37.
- 배성룡. (1925, 2). 젊은 여성의 유행미, 실질미. *신여성*, p. 21.
- 식물미용법. (1938, 8). *여성*, p. 84.
- 신여자백태. (1926, 7). *신여성*, p. 69.
- 심명숙. (1931, 4). 양식결발에 필요한 아이론 쓰는 법. *신여성*, p. 96.
- 셜링, 크리스. (1993). *몸의 사회학*. 임인숙 옮김 (1999). 서울: 나남출판.
- 양기철. (1938, 7). 여자혼자경영할수있는상점. *여성*, p. 57.
- 여성계소식. (1926, 8). *신여성*, p. 56.
- 오숙근. (1936, 9). 9월 화장. *여성*, p. 10.
- 오숙근. (1937, 2). 화장품은 손수 만들어 쓰시다. *여성*, p. 69.
- 오숙근. (1937, 6). 얼굴히게하는 비법공개. *여성*, p. 84.
- 오숙근. (1937, 7). 결혼화장법. *여성*, p. 86.
- 오숙근. (1937, 9). 화장에서 엿는 여성의 영동. *여성*, p. 86.
- 오숙근. (1937, 10). 초추의 화장. *여성*, p. 88.
- 유선영. (2000). 유행의 근대화: 할리우드 모더니티의 각인. *문화과학*, 24, 233-247.
- 유소제. (1931, 5). 녀학생 화장법. *신여성*, p. 99.
- 윤성상. (1937, 1). 유행에 나타난 현대여성. *여성*, p. 48.
- 이순재. (2006). 1945년 이전 여성잡지 표지화에 나타난 인체미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30(12), 1737-1746.
- 이영아. (2008). *유행의 탄생*. 서울: 민음사.
- 정화정. (1936, 4). 봄화장. *여성*, p. 45.
- 주은경. (2003). *20세기 전반기 한국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혜원. (1938, 2). 보매고상한 현대식 화장의 비결은. *여성*, p. 92.
- 터너, 브라이언. (1996). *몸과 사회*. 임인숙 옮김 (2002). 서울: 몸과 마음.
- 학창을 갓나온 이들의 화장. (1939, 5). *여성*, p. 52.
- 화장품업계타진. (1938, 5). *여성*, p. 54.
- 淑女備望帖. (1933, 6). *여성*, p. 64.
- 淑女備望帖. (1933, 7). *여성*, p. 74.
- 新春化粧室. (1937, 1). *여성*, p. 68.
- 女性的 雜觀雜評. (1926, 3). *신여성*, p. 51.
- 女人島. (1931, 11). *신여성*, p. 36.
- 自然美의化粧法. (1926, 6). *신여성*, p. 44.